

황종우 해수부 장관,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

-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 적극 동원 및 긴급방류를 통한 피해 저감 당부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30일(목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양식어가를 방문하여 사료급이, 사육밀도 조절 및 고수온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.

황 장관은 양식장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, △액화산소, 면역증강제 등 고수온 대응장비 현황 점검, △고수온기 양식수산물 관리요령 준수 및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, △작업 후 휴식 등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 등을 당부하였다.

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최근 수온 상승이 빨라지고 있어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시점”이라며, “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적극 동원하고 긴급방류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한편, 해수부는 지난 7월 21일 고수온 재난 예·경보 ‘경계’ 단계를 발령하고,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(76억원, 전년대비 31%증)했던 고수온 대응장비 예산에 18억원을 추가로 전용하는 등 피해 전 예방·대응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	담당자	사무관	김 환 (051-773-5392)
			주무관	남정희 (051-773-5392)